

지역화폐운동의 소비자교육적 함의

: 지역화폐운동 참여자의 비교문화적 체험을 중심으로

이 기 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천 경 희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겸임교수)

권 혜 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

현대 소비자교육연구에는 다양한 소비상황 및 소비행위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분석 및 해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화폐운동을 소비자교육적인 외연을 지니는 체계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대전 한밭레츠에 대한 참여관찰 및 국내의 지역화폐운동에 관한 다양한 텍스트를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내용 분석하여 지역화폐운동의 소비자교육적 의미를 발굴하였다.

지역화폐운동은 지역주민이 소유한 유희 기술 및 자원을 자율적으로 상호부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제적 가치를 근거로 지역주민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자립적 공동체경제를 창출한다. 기존 사회구조에서와 달리 지역화폐운동은 개인의 경제적 생활문제 해결과 공동체 구축을 통합적인 과정으로 만든다. 이러한 지역화폐운동 참여자의 비교문화적 체험을 소비자교육적으로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소비 일변도였던 기존 생활양식을 넘어서 스스로 자율적인 가치창출을 통한 일상생활 영역을 체험하고 있었다. 여기서 참여자는 시장의존적 소비자에서 자기생산능력이 발달된 소비자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체험한다. 둘째, 지역화폐운동에서는 매매관계가 순환적인 헌신과 보답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기획·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물질 및 서비스의 순환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영역의 활성화—공동체 생활문화의 성숙을 의미한다. 셋째, 참여자들이 다양한 재주를 살려 나눔으로써 호혜적인 일상생활 영역이 가능함을 체험하면서 생활비문제에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인격적 헌신을 존중하고, 기존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식의 계발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넷째, 지역화폐운동 참여자들은 신뢰와 보답의 윤리, 환경친화의 소비윤리, 민주적 생활윤리 등 현대 소비자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체득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화폐운동의 네 가지 소비자교육적 면모는 그것이 참여자로 하여금 기존 사회와는 전혀 다른 원칙에 의한 삶을 체험하게 하는 적절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장'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안에서 소비자는 직접 '또다른 문화'를 작은 실천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현대 소비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모델을 내면화하고 자기 주변과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참여적 주체로서 보다 활동적인 소비자시민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화폐운동은 소비자교육적 생활문화의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